



7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답  
익산시 명예도로 '하림로' 명명식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윤 4월 17일) 제2551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에너지11, 익산에 1000억원 대규모 투자

### 이차전지 제조공장 신설 전북도·익산시 협약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도와 익산시는 5일 도청에서 (주)에너지11과 나트륨 이차전지 및 이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제조공장을 신설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에너지11은 익산합영농공단지 24만7,563㎡(7만15,000평) 부지에 약 1,000억원을 투자, 이차전지 및 이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제조공장을 구축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익산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 성장 2030년에는 약 17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지금으로부터 30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17배씩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리튬이차전지의 경우 원자재 매장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가격 흐름이 매우 불안정하며 폭발이나 화재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5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도-익산시(주)에너지11 투자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 허락 인터파크 비즈니스 대표, 김용탁 (주)익산LED 협동조합대표,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투자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11은 기존의 리튬이차전지의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나트륨 이차전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마치고 현재 성능 검증 중이다.

나트륨 이차전지는 기존 리튬배터리에 비해 절반수준의 가격과 2배나 좋은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과 함께 폭발이나 화재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11은 양산 초기에는 가정용 3Kw 및 1Mw급 모델의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주축으로 국내시장에서 상용 시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기술향상을 통해 전기자동차용, 전기기계차용, 소형 전기차용, 노선버스용 나트륨 이차전지를 개발, 출시 예정이다.

(주)에너지11의 신규투자로 전라북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지역상인 및 향토업체의 물품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투자환경에서도 투자를 결정한 (주)에너지11의 하영근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에너지11이 국내 최

초로 나트륨 이차전지 상용화에 성공하여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전북도와 익산시도 협약을 체결한 (주)에너지11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시민에 건강한 먹거리·농민에 안정적인 소득을

## ‘전주푸드플랜’ 탄력

###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15일부터 본격 시행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소비돼 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먹거리 종합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협의 체계인 '전주시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해 먹거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감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순환경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전주푸드 2025 플랜을 실행해 왔다. 이 같은 전주푸드플랜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주푸드 직매장으로 전주종합경기장점과 송천점 2개를 운영해왔다.

아울러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게 판

로 개척을 통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친환경 농산물물류센터를 판매하고, 임산부 4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물류센터를 공급하고 있다. 또 안전하고 신선한 전주푸드 신선식품을 당일 배송하는 근거리 배송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용자 시 먹거리정책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건강한 시민, 자립하는 품격의 전주라는 비전 아래 추진 중인 전주푸드플랜 전략이 이번 조례 시행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